

# 함께 기뻐하리니



## 성경을 함께 읽어요

로마서 11:25-36  
15:14-25  
빌립보서 1:12-21

## 생각해요

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, 저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.



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,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.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당 1센트 혹은 장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.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.

[rbbb.wycliffe.ca](http://rbbb.wycliffe.ca) 416-888-2262

Copyright © 2012 by Wycliffe Canada. All rights reserved.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, 동의/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.

빌립보서에서 “함께”라는 말은 20번, “기쁨”이라는 말은 17번 나옵니다. 특히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,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말이기도해요.

“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...너희도...함께 기뻐하라.”

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한 일보다 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드린 헌금과 봉사를 가장 크고 귀하게 여겼고,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겼습니다. 또한 자신들은 서로 함께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신들이 한 봉사에 대해 어떤 칭찬이나 다른 상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요.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?

켄과 일레인 제이콥스 선교사님 부부는 멕시코 남쪽의 차몰라 부족과 오래 동안 일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. 바로 “감사한다”는 뜻으로, 차몰라 말로는 “콜라발”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차몰라 문화에서는 거의 이 말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요.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만 했어요. 하지만, 콜라발이라는 말은, ‘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 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,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’는 뜻이에요.

어째서 이 과부는 아무도 쓰지 않는 콜라발이라는 감사 인사를 했을까요?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 과부의 남편이 심하게 아팠을때, 그 과부는 일레인 선교사님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. 마

을의 무당이 어떤 치료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. 일레인은 이들을 병원에 데려갔고, 의사는 입원하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과부의 남편은 의사의말을 듣지 않고 병원을 나왔고, 결국 선교사님댁에서 죽었습니다.

아내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죽은 남편의 시체를 다시 마을로 옮겨 가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때는 차몰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심하게 미워했고,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차몰라 사람들도 매우 싫어했답니다. 그래서 켄 선교사님은 이 과부를 도와주기가 어려웠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, 이 과부도 선교사님 부부도 다 위험해 질 테니까요. 하지만 일레인 선교사님은 남편인 켄 선교사님을 설득했습니다. 켄 선교사님은 차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 낡은 흰 천으로 덮어 가렸습니다.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 마을로 죽은 시체를 몰래 옮겼습니다.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이었어요.

얼마 후 이 과부는 그날 시신을 덮었던 낡은 흰 천을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제이콥스 부에게 “콜라발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.

기독교가 차몰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몰라 사람 그 누구도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일레인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과 재능과 시간을 주었기에, 그 과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.

함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었고, 마침내 그들은 “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에 대해 ‘값을 필요없다’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” (pp.46-55, *These Words Changed Everything*, by David Aelits)